

동서양 전통적인 주택 양식의 실내공간 특성 비교분석 연구

- 한국, 중국, 일본, 로마, 이집트, 이태리의 사례주택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Analysis on Interior Spaces of the Selected Historical Residences in the Western and Eastern Countries

- focusing on case residences of Korea, China, Japan, Rome, Egypt, and Italy -

김연정* / Kim, Yeon-Jung

이연숙** / Lee, Yeun-Sook

Abstract

At the multi-cultural society, research is needed to encourage a social atmosphere for enhanced understanding and respect for different cultures & countries. The purpose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arrangement, space connection, interior decoration and the relationship among these three features, which showed each country's unique housing form tradition.

Three representative cases of historic residences from each country were selected on the basis of a recognized historic architecture directory. Total 18 residences from 6 countries - Korea, China, Japan, Rome, Egypt, and Italy - were comparatively analyzed.

As results, aspects generally found in Eastern countries, were the fence as the semi-open boundary between the inside and the outside of the house, the flexibility of spatial opening and partitions between rooms, and finally simple and movable decoration features. On the other hands, aspects appeared in Western countries, were the outer wall of the building as the boundary to the outside, the closed and fixed properties of the room partitions, and finally complex and fixed decoration features.

The research also showed that even within the same culture, the degree of openness varied. Each feature of space was related and could be explained within the same context. Housing, regardless of country and culture, tried to accommodate the exterior space inside the building as much as possible. The common pursuit was transformed to various visible forms and its reason might be due to different socio-cultural and environmental backgrounds that need to be continuously explored in academic area.

키워드 : 공간문화 비교분석 연구, 동서양 디자인 비교, 디자인과 문화, 주택 실내공간, 전통주택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 고유의 문화적 특성이 중요시되는 다국적 문화시대에 접어든 이 시대에, 각국의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무시키기 위한 일련의 학술진흥활동은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권마다

독자적이고 다양한 유형을 보이고 있는 주거 형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역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에 대한 현명한 방향 제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주택과 나아가 현대 주택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분석력을 길러 줄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국가의 주택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나라의 전통 주택에 대해 보다 잘 알게되는 기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로 대표적인 전통 주택양식에서 드러나는 공간의 특성들을 공간이 배치된 방식, 공간이 구획·연결된 연계방식, 실내장식의 특성들을 중심으로 분석하

* 정회원,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 감사,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Ph.D.

고, 이러한 특성들 사이에 어떠한 상호관계를 보이고 있는지 유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에 의해 유추된 특성들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주택양식에서 드러나는 문화권, 국가별로 독특한 형식과 내용의 지역적 특수성과 보편성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1.2. 자료 선정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모든 과정은 문헌들을 통한 내용분석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화권에서 전통적인 주택을 고찰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할 주거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고유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고수하며 발전해온 국가들을 중심으로 동양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서양에서는 고대 로마, 고대 이집트, 이태리 등 각 3 국가씩 6 국가를 선정하였다. 중국은 아시아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이라는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국가이고,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서양의 현대건축 및 디자인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온 국가이다. 고대로마는 서양 문화권에서 유럽 전역을 차지하며 선도적으로 유럽 문화의 바탕을 형성했던 국가이며, 고대 이집트는 열강에 둘러싸여 있지만, 자연적, 물리적인 배경에 의한 고립으로 인해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 역사적 국가이다. 또한 이태리는 인간과 주거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대두된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발달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국가일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주거 형태는 현대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 맥을 찾을 수 있어 선정되었다.

자료 선정의 객관성을 위해 Ehresmann(1984)의 *Architecture: A bibliographic guide to basic reference works, histories, and handbooks*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문헌은 건축 관련의 가장 대표적인 문헌들을 시기, 양식, 나라, 건축물의 형식별로 정리하고 제시한 일종의 지침서 형식으로 정리된 것으로 건축의 역사에 따른 시대 개관, 축조 기술, 건물의 유형, 공간과 구조, 장식의 문제들에 대한 여러 문헌들을 분류하고 분석한 도서목록으로 구성된 문헌이다. 이 문헌의 범위는 1875년부터 1980년 사이에 출판된 영어와 서부 유럽의 언어로 쓰여진 문헌들 그리고 미국 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헌들을 중심으로 정리되었고, 팜플렛과 정기간행물, 전시회 카탈로그, 논문 등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문헌들을 중심으로 건축의 역사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수집하였다. 세계 건축사를 다루고 있는 문헌, 한 나라의 건축사를 다루고 있는 문헌, 하나의 양식에 대해 다루고 있는 문헌, 주택 건축 관련 문헌들이 제시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자료 등 다양한 종류의 문헌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를 선정하고

분석하였다.

위 문헌들의 조사, 분석을 통해 각 국가별로 전통적인 양식을 선정하였다. 한국은 조선시대의 양반주택, 중국은 사합원, 일본은 쇼인(shoin) 양식의 주택, 고대로마는 폼페이 도무스(domus) 주택, 이태리는 팔라초(palazzo), 이집트는 텔-엘-아마르나(Tell-el-Amarna)의 귀족주택을 선정하였고, 이들이 각국의 전통적인 주택양식으로 선정된 이유는 2장에 각각 기술하였다. 또한 각 양식에서 유추된 공간특성들의 성향을 확인하기 위해 각 양식에서 대표적인 주택사례를 선정하고 가시적인 자료들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각 주택사례들은 위의 문헌들과 저자들의 공통된 주장을 통해 그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례들을 국가별로 3 사례씩 선정하고 분석하였다. 사례 선정 시,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이나 전통성 등은 일반 서민의 주택보다는 문화적, 사회적 배경, 물리적 환경 등에 보다 더 민감하게 대응하고 그 영향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상류주택으로 한정하였다.

한국은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연경당, 충효당, 녹우당, 중국은 사합원 양식의 3사례, 일본은 쇼인 양식의 니노마루궁, 가즈라별궁, 슈가쿠인 별궁, 고대 로마는 도무스 양식의 페티의 주택, 은혼의 주택, 메난더 주택, 고대 이집트는 텔-엘-아마르나 귀족주택으로 주택 T.36.11, 나크트 고관 주택, 라모스 장군의 별장 주택, 그리고 이태리는 팔라초 양식의 메디치 리카르디, 파르네제, 두칼레가 각각 선정, 분석되었다.

연구 목적에 따라 공간배치 특성과 공간연계방식 특성, 실내장식 특성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들 특성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의 틀을 만들고 이에 따라 분석하였고, 대표적인 사례들을 통해 이러한 특성들을 확인하고 시각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해 외연적인 특성들을 중심으로 주택 양식들의 특성들이 보이는 성향 사이의 관계를 구성하고 도출하였다.

위 분석의 틀에서 살펴본 기준들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전통적인 주택양식의 공간특성, 분석기준 및 틀¹⁾

분석 기준		구체적 분석 특성	유추된 성향
공간배치 특성		전체적 형상(배치방식/형태/대칭성/축)	
		체의 분화 여부	
		공간구성의 중심성 및 확장, 연결 방식	
		위계성(공사/남녀/상하/가족서열)	
		연결성과 융통성	
실내공간특성	공간연계방식	주택 외부와 주택	주택의 경계와 개구부 처리방식
		주택 내의 외부와 실내	벽과 개구부 처리방식, 매개공간
	실과 실 사이	실과 실 사이	벽과 개구부 처리방식
		실내장식 특성	벽, 바닥, 천장 처리방식 가구 특성 및 배치 방식

1) 분석기준과 구체적인 분석 특성들은 물리적인 특성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나, 공간배치 특성은 이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언급될 필요가 있는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도 함께 살펴보았다.

1.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내용상의 범위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공간배치 특성, 공간연계방식 특성, 실내장식 특성 등 공간특성들에서 유추된 성향을 바탕으로 외양적으로 드러나는 물리적 성향만을 중심으로 그 성향들 사이의 관계를 유추하였다. 그러나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은 이러한 외양적인 성향이 드러나게 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가별로 전통적인 주택 양식의 공간 특성에 대해 조사할 때 세계관과 가치관, 사회적 구조에 따라 나타난 공간들의 구성방식들을 공간배치 특성 부분에서 함께 다루어 주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본 연구에서 도출한 외양적인 특성들간의 관계에 있어 배경이 되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 문화권, 국가마다 외양적인 특정 형태로 형성되게 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자료가 허용하는 한 정리하였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왜 필연적으로 그러한 외양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했는가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 간의 관계와 분석은 보다 심층적이고, 다학제적인 후속 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고, 본 연구는 비교문화적인 연구의 시작점으로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드러난 외양적인 특성들 사이의 관계만을 다루었다.

자료상의 범위로, 다국적 문화의 비교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전례가 거의 없어 비교, 분석의 틀을 세우는 데 기초적인 단계이며, 본 연구는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로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상의 제한이 있었다. 각 국가별로 역사적인 주택 유형과 사례에 대한 문헌자료의 양이 동등하지 않았다. 또한, 국내에서는 대부분 세계의 건축사 전반이나 한 나라의 건축사를 다룬 내용이 대부분으로 한 양식이나 주택 사례들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국외에서 자료를 구하는 과정에서, 각 국가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질적으로 우수하겠지만 수집과 번역의 한계로 영문 문헌만으로 제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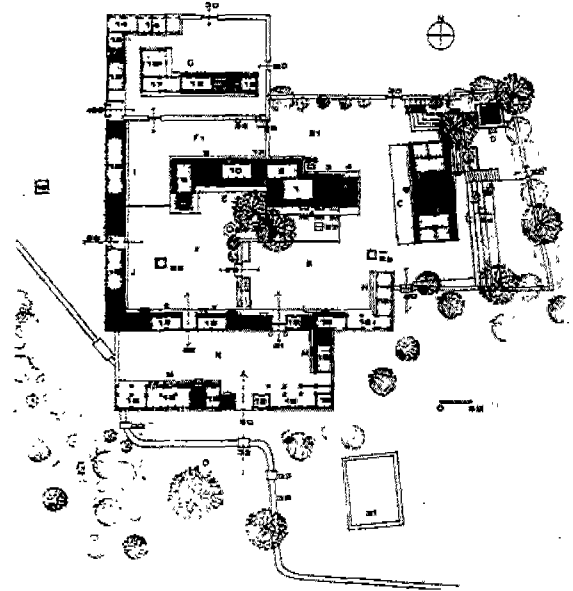
2. 국가별 전통적인 주택양식의 공간특성 분석

2.1. 한국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공간특성

조선시대가 한국사에 있어서 근세에 자리잡고 현대를 있는 길목에서 원시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모든 문화를 계승, 발달시켜 온 것을 생각할 때 조선시대의 주택이 한국건축의 중요한 기반이 됨을 알 수 있다.²⁾ 따라서 한국의 전통주택을 고찰하는데 있어 현존하는 실례가 가장 많은 조선시대의 상류주택을 선정하였다.

한국의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공간배치 특성으로 전체적 형상은 대지를 따라 세워진 담장과 행랑채 내에 여러 채들이 집

합된 형태로 전체적인 채들의 배치와 채 자체의 평면이 비대칭적인 균형을 이루며 명백한 축 없이 유기적으로 배치된 특성을 보인다. 각 채는 대청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주택은 이러한 또 다른 채가 세워지며 확장된다. 또한 남녀, 상하, 가족서열에 따른 위계성을 보이며, 공간의 성격에 따른 분화는 기본적으로 엄격하나, 배열은 자유롭고 유기적인 배치 특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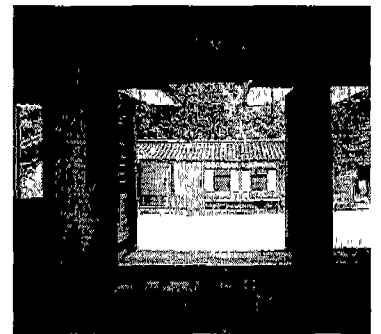


<그림 1> 연경당 평면도

출처: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1997, p.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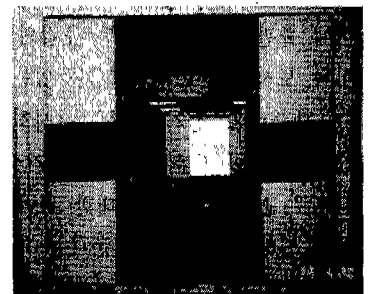
공간연계방식 특성은 주택외부와 주택 자체는 대지가 담장과 행랑으로 구획되고, 외부로의 개구부는 높은 들창과 중앙의 대문만 있어 극히 폐쇄적이다. 주택 내에 형성된 외부공간과 실내 사이는 벽체 대부분이 들어열개 창호로 구성되어, 대청이라는 매개공간이 있어 실내·외 공간을 융합시켜, 자연을 향해 매우 개방적인 특성을 보인다. 실과 실 사이는 벽체 역할을 하는 분합문과 미세기문으로 통해 방의 통합과 분화가 용이하다.

실내장식 특성은 벽, 바닥, 천장은 천장지, 벽지, 창호지, 장판지 등으로 마



<그림 2> 연경당 대청의 창호와 실내의 연결

출처: 류경수, 우리 예 건축에 담긴 표정들, 1998, p.125



<그림 3> 연경당 창호와 실간 연결

2) 주남철, 조선시대 주택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76

감하여 단순한 면으로만 구성되어 깨끗하게 비워두었고, 가구들은 좌식생활을 위해 낮고 장식도 소박하고 과장되지 않으며, 지정된 자리에 배치된 특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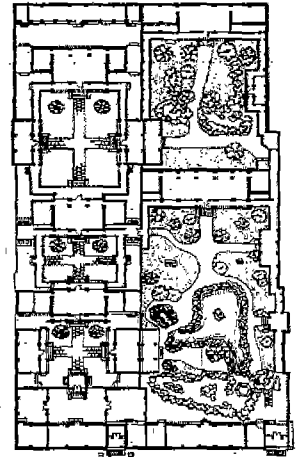
<표 2> 한국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공간배치 및 공간연계방식과 실내장식 특성

분석 기준		구체적 분석 특성		유추된 성향
공간 배치 특성	전체적 형상 (배치방식/형태/대칭성/축)	전체적인 체들의 배치와 체 자체의 평면이 비대칭적인 균형을 이루고 명백한 축이 나타나지 않으며 유기적으로 배치된 형태		주택 전체는 담으로 명백히 구획되어, 담 내부 주거 건물과 담 사이에 외부공간을 향해 외향적인 성향을 띠며, 수평적인 건물의 확장을 통해 위계에 따른 공간의 분리
	체의 분화 여부	하나의 주택은 여러 체들의 집합으로 형성되며, 다시 각 체들은 소단위의 기본공간이 집합을 이룬 형태		
	공간 구성의 중심성 및 확장, 연결 방식	공간구성상 각 체의 중심은 대칭이 되며, 이에 방을 덧붙여가고, 각 방을 연결하는 대개 공간을 이룬. 주택은 이러한 또 다른 체가 세워지며 확장.		
	위계성 (공사/남녀/상하/가족서열)	남녀상하의 엄격한 구분에 따라, 사랑채는 남성의 공간이자 사회적 기능 수행, 안채는 여성의 공간이자 가정적 기능 수행. 사랑채와 안채는 상의 공간, 행랑채는 하인들의 하의 공간으로 분리. 사랑채와 안채 각 체 내에서도 가족서열에 따른 분리로 각 공간은 엄격한 분리와 위계성 드러냄.		
	엄격성과 융통성	공간의 성격에 따른 분화는 기본적으로 엄격, 그 배열은 자유롭고 유기적인 배치 형태. 실내의 공간의 통합과 단절, 배치의 융통성.		
공간 연계 방식 특성	주택의 경계와 개구부 처리방식	대지 주위를 담장과 행랑으로 둘러싸고 비탈 행랑의 외부로 높은 들창과 중앙의 솟을대문만 설치됨	외부에 대해 극히 폐쇄적	
	주택 내 외부와 실내	각 체들의 벽체 대부분이 모두 들어올려 매달 수 있는 들어열개 창호로 구성. 주공간의 내부와 외부의 연결과 분리를 시켜주는 빗마루, 대청 등의 매개공간 구성	매우 개방적. 실내·외의 융합. 공간의 확장성	
	실과 실 사이	대청과 방 사이는 분합문, 방과 방 사이는 미세기문으로 벽 역할. 개폐 여부에 따라 방의 통환과 분화 가능.	개방적, 융통적. 공간의 확장성	
실내 장식 특성	벽, 바닥, 천장 처리방식	방 내부 천장은 천장지, 벽은 벽지, 창호는 안쪽에서 창호지, 바닥은 장판지로 마감하여 단순한 면으로만 구성. 대청의 천장은 구조가 노출되는 연등천장, 벽은 거의 모두 창호, 바닥은 마루로 구성.	단순하고 깨끗하게 비워둠.	
	가구 특성 및 배치 방식	장, 농, 계, 탁자, 문갑, 상 등 좌식생활에 맞는 낮은 가구들을 지정된 자리에 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배치. 대청은 텅빈 공간으로 처리. 단아한 비례와 짜임새, 소박한 금구장식.	비교적 고상적. 소박, 과장되지 않은 장식	

중심으로 반복, 확대되며 각 건물은 회랑을 통해 연결되는 배치 특성을 보인다. 또한 공사, 상하, 가족서열에 따라 위계성을 보이며, 엄격한 형식과 규칙을 준수하는 특성을 보인다.

공간연계방식 특성으로 주택의 경계는 대지가 담과 벽으로 봉쇄되어 있고 외부로는 창을 거의 내지 않아 극히 폐쇄적이며, 주택 내 외부와 실내 사이 중정 쪽에 면한 벽면들은 모두 창호로 구성되나 직접 출입은 당4에서만 가능하며 부분적인 개방성을 보이며, 건물과 건물, 실내외를 연결하는 회랑이라는 매개공간이 있어 실내외의 융합을 피하고 있다. 실 사이는 쉽게 해체 및 설치가 가능한 목재. 경량 칸막이로 시각적으로는 개방적이나 용도의 통합은 불가능한 부분적으로 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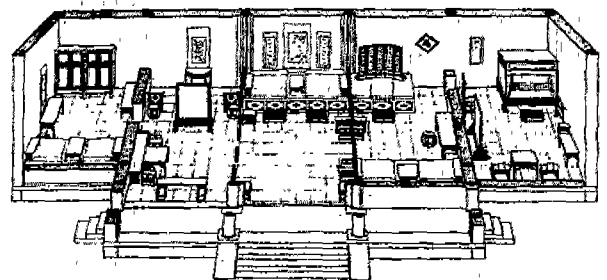
실내장식 특성은 흰 회벽, 석조 바닥, 종이를 바른 천장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처리되어 있으나, 칸막이와 개구부는 다소 복잡하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으며, 가구는 입식으로 하나의 조를 이루며 대칭적으로 엄격한 획일성과 일체성을 보이며 배치된 특성을 보인다.



<그림 4> 사합원 평면도
출처: 손세관, 북경의 주택, 1995, p.20



<그림 5> 사합원 중정
출처: 손세관, 북경의 주택, 1995, p.76



<그림 6> 사합원의 실내와 가구 배치
출처: 손세관, 북경의 주택, 1995, p.82

2.2. 중국 사합원의 공간특성

북경에서 일반화된 주거형식인 사합원은 중국의 주거문화를 대표하고 있으면서 중국인의 주거관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북경 사합원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중국 주거문화의 전체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

중국의 사합원 공간배치 특성은 담과 벽으로 봉쇄된 대지 내에 분리된 네 동의 건물이 이룬 口자형의 기본구성 형태가 남북방향의 주축과 또 다른 부축을 따라 口자의 중앙인 중정을

2.3. 일본 쇼인(shoin)양식 주택의 공간특성

쇼인(shoin) 양식은 17세기 초 전형적인 봉건영주의 주택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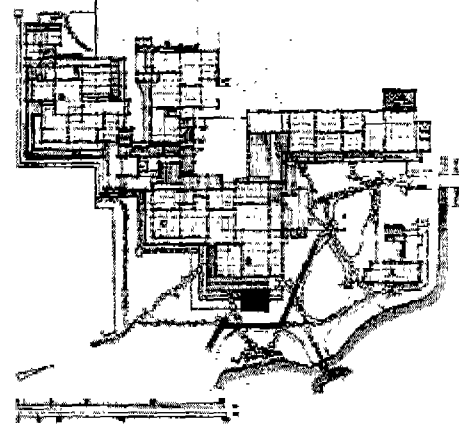
4) 조당, 절과 식사, 관혼상제의 장소, 주택의 상징적 중심으로 기본이 되는 네 동의 건축물 중 가장 안쪽에 위치하며, 남쪽으로 중정에 면한 건물.

3) 손세관, 북경의 주택, 1995

<표 5> 중국 사합원의 공간배치 및 공간연계방식과 실내장식 특성

분석 기준	구체적 분석 특성	유추된 성향	
공간 배치 특성	전체적 형상 (배치방식/ 형태/대칭성/축)	내 등의 건물이 이룬 모자형을 기본구성으로 하여 남북방향으로 명백한 축을 따라 반복, 확대	주택 전체는 담으로 명백히 구획되어, 담 내부 주거건물과 담 사이에 외부공간을 향해 외향적인 성향을 띠며, 수평적인 건물의 확장
	채의 분화 여부	각 방향의 건물이 분리	담 내부 주거건물과 담 사이에 외부공간을 향해 외향적인 성향을 띠며, 수평적인 건물의 확장
	공간 구성의 중심성 및 확장, 연결방식	중정을 중심으로 이를 둘러싼 단위공간이 종축선을 따라 반복, 확대하며, 각각의 건물은 회랑을 통해 연결됨	확장체의 분리를 통해 위계에 따른 공간의 분리
	위계성 (공사/남녀/상하/ 가족서열)	가족서열에 따라 가장 안쪽은 최연장자가 사용. 공사, 주인과 하인의 공간이 분리된 명백한 위계가 있는 공간구성	
	엄격성과 융통성	엄격한 형식과 규칙을 준수하는 배치 형태	
실내 공간 특성	주택 외부와 주택	주택 사방으로 담과 벽으로 봉쇄되어 있고 외부로는 창을 내지 않거나, 높은 곳에 작은 창만을 냄	외부에 대해 극히 폐쇄적
	주택 내 외부와 실내	모든 실의 주택 내 외부인 중정 쪽으로 연한 벽면 전체가 모두 창호지를 바른 문과 창으로 구성되나, 중정으로의 직접 출입은 당에서만 가능. 건물과 중정 사이에 회랑을 구성하여 건축물 사이를 연결함과 동시에 실내와 실외를 연결하는 때 개적 공간	부분적으로 개방적 실내·외의 융합.
	실과 실 사이	방과 방 사이의 공간 구획은 나무로 만든 경향 칸막이 이용하여 쉽게 해체 및 설치 가능.	개방적, 비교적 융통적
실내 장식 특성	벽, 바닥, 천장 처리방식	중정 쪽 벽은 개구부르, 다른 벽에는 흰색을 바른 벽 위에 커다란 두루마리 그림과 주변에 대련을 붙임. 바닥은 석판	구조체 자체는 단순. 칸막이와 개구부는 복잡.
	가구 특성 및 배치 방식	가구는 일직이며, 하나의 조를 이루어 대칭적으로 엄격한 획일성과 일체감 추구. 창가의 탁안과 전후의 침함을 중심으로 계과 의가 보조	고정성, 엄격한 획일성, 화려함.

식)으로, 봉건시대 이후 상류주택의 표본형태가 되어 이 양식의 요소들이 더 낮은 계층에까지 전파되어 오늘날 주거건축에서 일본 양식의 공간에 계승되고 있고, 전통 일본주택은 쇼인(shoin). 양식이 변용된 주택 범위 내에 있다.6) 이 양식은 현재 일본 주택에 강력한 영향력과 연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성을 지닌다.7)



<그림 7> 가쓰라 별궁 평면도

출처: Masuda, Architecture of the World: Japan, 1997, p.168

일본의 쇼인(shoin) 양식 주

5)Tomoya Masuda, Architecture of the World: Japan, 1997

6)Fumio Hashimoto, Architecture in the Shoin Style: Japanese Feudal Residences, 1981

7)Tetsuro Yosida, The Japanese House and Garden, 1995
西和夫 외 1 저, 이무희, 김정돈 역, 일본건축사,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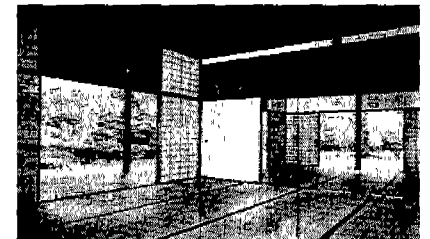
택의 공간배치 특성은 대지를 따라 세워진 담 내에 분리된 건물들이 명백한 축의 진행 없이 가려기형으로 연결된 비대칭적인 배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건물을 중심으로 각 건물들이 배란대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확장된다. 공사, 남녀, 상하에 따른 위계성을 보이니, 공간구성은 자유롭고 융통성이 뛰어난 배치 특성을 보인다.



<그림 8> 가쓰라공의 창호열린 외관
출처: Drexler, The Architecture of Japan, 1955, p.152

공간연계방식 특성으로 주택의 경계는 대지를 따라 담으로 둘러싸이고 주출입구 외에 개구부는 없어 외부에 극히 폐쇄적이고, 주택 내 외부인 정원과 실내 사이는 벽체가 모두 개폐 가능한 미세기문으로 구성되어 자연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실내외의 융합이 뛰어나고, 실과 실 사이도 벽체가 가변적인 미세기문으로 구성되어 실간의 개방성과 융통성을 보이며, 실간, 실내외 공간의 확장성이 뛰어난 특성을 보인다.

실내장식 특성은 회반죽 벽과 다다미 바닥, 우물천장 등으로 단순하고 간소하게 처리되어 있고, 도쿄노마(tokonoma)라는 벽감 장식 외에는 일체의 장식을 배제한 특성을 보인다. 가구도 거의 배치되지 않았고, 고정되지 않아 융통성이 뛰어나며, 매우 간소한 특성을 보인다.



<그림 9> 실내외, 실간 연계방식
출처: Hashimoto, Architecture in the Shoin Style: Japanese Feudal Residences, 1981, p.148

2.4. 로마 도무스(domus) 주택의 공간특성

자료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로마 주택에 관한 가장 좋은 자료는 폼페이와 허쿨라네움에서 발견되고 있으며8), 고대 로마건축의 주거 건축물에 관한 주 원천은 비트루비우스의 서적들과 폼페이의 유적들이다.9) 주거 건축물로 도무스(domus) 주택은 도시 상류계층 주택의 기본 유형이었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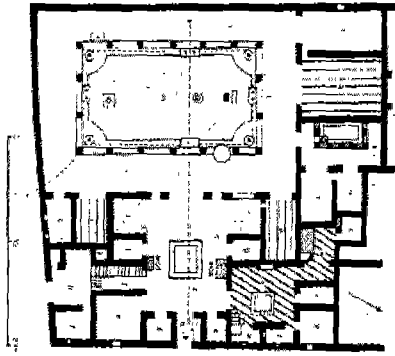
고대 로마의 도무스(domus) 주택의 공간배치 특성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변형의 건물로 이 건물 내에 공간이 분화되

8)Ian M. Barten(ed), Roman Domestic Building, 1996

A. G. McKay, Houses, Villas and Palaces in the Roman World, 1975

9)August Mau, Pompeii: Its Life and Art, 1982

10)손세관, 도시주거형성의 역사,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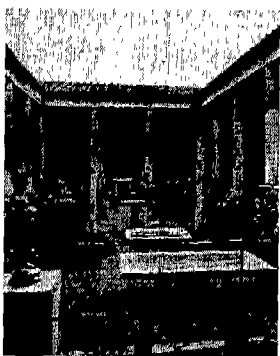


<그림 10> 베티의 주택 평면도

출처: Clarke, The Houses of Roman Italy, 1991, p.209

<표 4> 일본 쇼인(shoin) 양식 주택의 공간배치 및 공간연계방식과 실내장식 특성

분석 기준	구체적 분석 특성	유추된 성향		
공간 배치 특성	전체적 형상 (배치방식/형태/대칭성/축)	전체적으로 분리된 각 건물이 기러기형으로 연결된 비대칭적인 배치 형태이며 명백한 축의 진행 없음	주택 전체는 정육으로 명백히 구획되어, 담 내부 주거건물과 담 사이의 외부공간을 향해 외향적인 성향을 띠며, 수평적인 건물의 확장체의 분리를 통해 위계에 따른 공간의 분리	
	채의 분화 여부	분리된 건물들이 연결된 배치 형태		
	공간 구성의 중심성 및 확장, 연결 방식	공간의 중심은 가장 중요한 건물로 이를 중심으로 각각의 건물이 배란다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		
	위계성 (공사/남녀/상하/가족서열)	공적인 기능을 적극적으로 주택 내에 도입하여 앞쪽 건물은 공적 혹은 공사 모두, 뒤쪽 건물은 사적인 공간이며, 앞쪽은 남성, 뒤쪽은 여성공간으로 분리됨. 주인과 하인은 같은 건물내에 위치하지만 건물 내에서의 위치가 다른 위계성 드러냄		
엄격성과 융통성	공간구성은 불규칙적이며, 자유롭고 융통성이 뛰어난 배치			
공간연계방식 특성	주택 외부와 주택	주택의 경계와 개구부 처리방식	주변이 정육으로 둘러싸이고, 주출입구 외에 개구부 없음	외부에 대해 극히 폐쇄적
	주택 내 외부와 실내	벽과 개구부 처리방식, 매개공간	주택과 주택 내 외부 사이에는 거의 모든 부분이 미세기문(sliding screen)으로 구성. 열연 자연과 적극적인 상호작용. 건물 주변을 따라 배란다가 구성되어 실내와 실외의 연계공간	매우 개방적. 실내·외부의 융합. 공간의 확장성
	실과 실 사이	벽, 개구부 처리방식	벽이 미세기문으로 구성되어 매우 가변적	매우 개방적. 매우 융통적. 공간의 확장성.
	실내 장식 특성	벽, 바닥, 천장 처리방식	한쪽 벽에 도쿄노마리는 벽감장식외에는 일체의 장식을 하지 않음.	단순, 간소
	가구 특성 및 배치 방식	가구는 거의 없고, 고정되어 있지 않아 완전히 없앨 수 있음.	간소	유동성 뛰어남



<그림 11> 베티의 주택 페리스타일
출처: Lessing, & Varone, Pompeii, 1995, p.105

공간연계방식 특성은 주거건물의 외벽 자체가 주택의 경계로 외부로 창이 거의 없거나 아주 작아 폐쇄적인 성향을 보이며, 주택 내에 수용된 외부공간인 중정 쪽으로는 커다란 개구부가 있어 비교적 개방적이나 변화가 불가능하고, 실간 사이는 고정 불변적인 벽으로 확실히 구획되어 매우 폐쇄적으로, 실내외, 실간의 공간 통합은 불가능하고 고정적이며 폐쇄적인



<그림 12> 베티의 주택 실내벽화

출처: McCorquodale, The History of Interior Decoration, 1983, p.105

특성을 보인다. 실내장식 특성으로 벽은 다양하고 다채롭게 벽면을 가득 채운 벽화로 처리 되어있고, 바닥은 모자이크처리, 천장은 볼트 천장으로 영속적이고 화려한 특성을 보인다. 가구들도 화려하고 정교하게 장식되었고, 침대는 벽감 형식으로 테이블도 육중한 석재로 되어 고정적인 특성을 보인다.

<표 5> 로마 도무스(Domus) 주택의 공간배치 및 공간연계방식과 실내장식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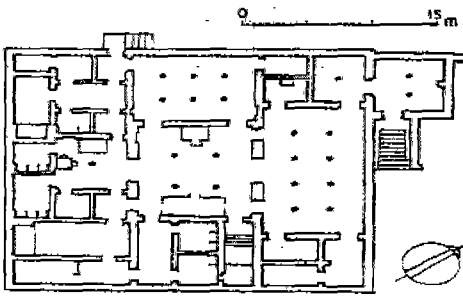
분석 기준	구체적 분석 특성	유추된 성향		
공간 배치 특성	전체적 형상 (배치방식/형태/대칭성/축)	대체적으로 사변형의 형태로 배치. 방들은 좌우대칭적으로 배열. 입구에서 아트리움, 타불리, 페리스타일까지 축적 방향성 보임	주거 건물의 외벽 자체가 외부와의 명확한 경계를 지어, 실내 공간들은 더 이상 밖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외부공간을 수용하고 있는 주거건물의 중앙부를 향해 내향적인 성향, 수직적인 공간감, 장, 층의 분화와 고정된 벽을 통해 위계에 따른 공간의 분리	
	채의 분화 여부	주위가 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건물 내에 공간이 분화, 하나의 건물로 구성.		
	공간 구성의 중심성 및 확장, 연결 방식	중정을 중심으로 주변의 방들이 둘러싼 배치형태. 가장 외부에 면한 벽이 고정적이라 수평적 확장 불가능, 수직적 확장.		
	위계성 (공사/남녀/상하/가족서열)	아트리움 중심의 사회적 공간, 페리스타일 중심의 가정적 공간으로 분리. 주인의 가족과 노예의 거주공간의 분리. 노예들의 공간은 거의 드러나지 않음.		
엄격성과 융통성	방의 용도와 성격, 위치가 처음부터 고정적인 배치형태.			
공간연계방식 특성	주택 외부와 주택	주택의 경계와 개구부 처리방식	외벽 자체가 가로와 주택의 경계. 주택 외부로 창이 거의 없거나 아주 작은 창만 있음.	외부에 대해 폐쇄적
	주택 내 외부와 실내	벽과 개구부 처리방식, 매개공간	중정 쪽으로 면한 큰 문이 거의 유일. 한 개구부. 고정적이고 변화 불가능. 중정을 통해 다른 방들로 이동.	중정을 향해 비교적 개방적. 공간의 통합은 어려움.
	실과 실 사이	벽, 개구부 처리방식	고정 불변적인 벽으로 확실히 구획. 실벽의 통합, 연결 불가능.	폐쇄적. 고정불변.
	실내 장식 특성	벽, 바닥, 천장 처리방식	다양한 주제, 다채로운 색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된 벽면 가득한 벽화. 바닥은 모자이크 처리. 침대와 카우치의 자리에까지 바닥처리로 구별. 볼트형 천장	영속적. 복잡하고 화려한 채색. 벽면을 광채움.
	가구 특성 및 배치 방식	의자, 테이블, 트리파드, 체스트, 분수, 조각상 등. 침대는 건축적으로 고정불변 처리. 개구부 통한 조망 고려한 배치. 금, 은, 상아를 삼각처리.	고정적. 화려하고 정교한 장식.	

2.5. 이집트 텔-엘-아마르나(Tell-el-Amarna) 귀족주택의 공간특성

고대 이집트의 주거 건축의 연구에 있어 가장 좋은 장소는 아텐(Aten)의 도시, 즉 아케나텐(Akhenaten)으로 현재 텔-엘-아마르나(Tell-el-Amarna)라고 알려진 곳이다.¹¹⁾

텔-엘-아마르나 상류주택의 공간배치 특성은 담으로 구획된 대지 내에 정사각형 형태의 주 건물과 이와 분리된 후면의 부속건물들로 구성되며, 주 건물은 대칭적인 배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생활공간은 주 건물의 중앙홀을 중심으로 주변에 여러

11) Baldwin E. Smith, Egyptian Architecture as Cultural Expression, 1938



<그림 13> 나크트 고관 주택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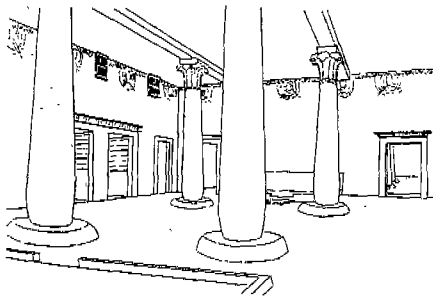
출처: Badawy, A History of Egyptian Architecture, 1968, p.101

실들이 둘러싸며, 층을 올려 공간이 확장되며, 서비스 공간은 별도의 부속건물을 세워 확장되고, 규칙성과 엄격한

대칭성을 지키는 특성을 보인다.

공간연계방식 특성은 외부와는 담으로 구획되어 대문을 통해서만 주택 내에 진입하는 폐쇄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 내 외부와 실내는 1층은 주택 외벽에 채광을 위한 작은 창들만 천장 가까이에 있어 폐쇄적이지만, 2층은 벽 한 면이 개방된 로지아라는 공간이 실내외를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실내는 고정 불변의 벽으로 실을 구획하여 폐쇄적인 특성을 보인다.

실내장식 특성은 다양한 주제로 벽 표면 전체를 덮는 화려한 벽화가 그려져 있고, 바닥도 비교적 화려하고 다양한 처리로 영속적이고 화려하게 채색과 장식된 특성을 보인다. 가구는 침대와 의자가 불박이로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화려하고 정교하게 장식된 특성을 보인다.



<그림 14> 나크트 고관 주택 중앙홀

출처: Badawy, A History of Egyptian Architecture, 1968, p.101

<표 5> 이집트 텔 엘 아마르나(Tell-el-Amarna) 주택의 공간배치 및 공간연계방식과 실내장식 특성

분석 기준	구체적 분석 특성	유추된 성향	
공간 배치 특성	전체적 형상 (배치방식/형태/대칭성/축)	주건물은 정사각형 형태로 일구부터 궁적공간을 거쳐 개인 공간까지 비대칭적이고 유기적인 배치형태를 보인다. 대문의 일구축의 연장선 상에 신전을 배치하여 명백한 축 보이나, 거주공간에서는 축적인 구성은 찾기 힘들.	주택 전체는 담으로 명백히 구획되었으나, 담 내부 주거 건물과 담 사이에 외부공간 유추는 폐쇄적이고,
	체의 분화 여부	가족들의 공간으로 구성된 주건물과 후면에 부속건물들로 분리되어 구성.	담 내부 주거 건물과 담 사이에 외부공간 유추는 폐쇄적이고,
	공간 구성의 중심성 및 확장, 연결 방식	중앙의 정사각 홀을 중심으로 보다 작은 정방형 홀 중심의 사적공간과, 점진적으로 구성. 홀을 통해 각 실로 접근. 주 건물 내에서 생활공간의 수평적 확장과 별도의 부속건물을 통한 서비스 공간의 수직적 확장 동시에 발생.	담 내부 주거 건물과 담 사이에 외부공간 유추는 폐쇄적이고, 주거건물 자체가 중앙부를 향해 내향적인 성향, 수직적, 수평적으로 등
	위계성 (공사/남녀/상하/가족서열)	가실로 사용되는 중앙홀과 점진적으로 공적인 영역, 개인공간들과 이들로 연계된 정방형 홀은 사적인 영역으로 분리와 위계성 나타냄. 정방형 홀은 여성중심 공간이며, 주인과 노예의 거주 공간 완전히 분리된 위계성 보임.	시에 공간확장체의 분화, 고층의 분화, 고층된 벽을 통해 위계에 따른 공간의 분리
	엄격성과 융통성	사변형 평면에 정방형 가실 주변의 실들의 규모와 수에 의해서만 달라지는 규칙성. 모든 주택들의 유형이 거의 비슷.	외부적으로 폐쇄적
공간연계방식 특성	주택 외부와 주택	주택의 경계와 개구부 처리방식	대지는 담으로 둘러싸이고 대문을 통해서만 주택 내에 진입.
	주택 내 외부와 실내	벽과 개구부 처리방식, 매개공간	커다란 홀에는 채광을 위한 작은 창들만 천장 가까이에 위치, 2층의 한쪽 벽면이 없는 루지아라는 공간이 외부와 내부 직접 연결.
	실과 실 사이	벽, 개구부 처리방식	고정 불변의 벽으로 방 구획. 홀을 통해서만 서로 출입 가능.
실내장식 특성	벽, 바닥, 천장 처리방식	벽은 표면 전체를 뒤덮는 일상생활, 종교적 표현 등을 주제로한 벽화로 처리. 회반죽 꽃문 장식. 바닥은 벽돌, 채색, 골돌 등 다양한 처리.	영속적, 화려한 채색과 장식.
	가구 특성 및 배치 방식	연단 위의 불박이 의자. 침대는 건축적으로 고정. 다양한 스톨과 체스트. 화려하고 정교한 장식.	고정적, 화려하고 정교한 장식

네상스의 시작점이었던 이태리의 귀족주택인 팔라초가 새로운 유형의 도시주거로 정착했다.



<그림 16> 메디치 리카르디 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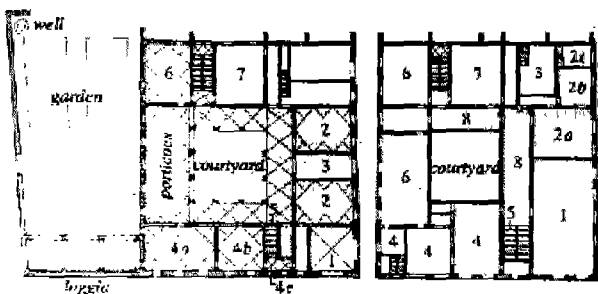
출처: 베르트랑 제타 저, 김택 역, 건축의 르네상스, 1997, p.78

이태리의 르네상스 팔라초 (palazzo)의 공간배치 특성은 대규모의 볼록을 형성하며 하나의 거대한 사변형 건물로 주택 중앙을 지나는 명백한 축에 따라 대칭적으로 균형잡힌 특성을 보인다. 평면 중앙의 중정을 중심으로 주변의 실들이 둘러싸고 층을 올려

공간의 확장된다. 공사, 상하, 가족서열에 따라 위계성을 보이며, 공간의 용도와 기능도 엄격한 특성을 보인다. 공간연계방식 특성은 주거건물의 두꺼운 외벽 자체가 경계로 폐쇄적이고 창문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주택 내 외부인 중정을 향해 1층은 아치로, 상층부들은 규칙적인 창문들이 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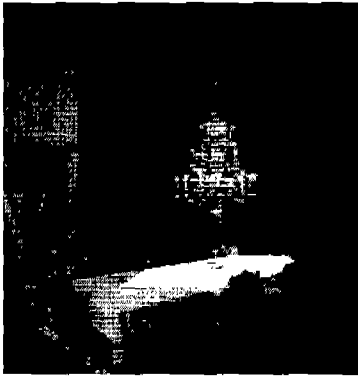
2.6. 이태리 팔라초(Palazzo)의 공간특성

암흑시대라는 중세를 지나 르네상스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었고 이전의 종교건물에만 기울어졌던 관심이 비로소 궁전, 저택, 별장 등과 같은 세속건물에까지도 기울어졌다. 특히 상류시민 계층의 주거는 르네상스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르



<그림 15> 메디치 리카르디 평면도

출처: Mitchell Beazley International, Ltd., ed. The World Atlas of Architecture, 1998, p.272



<그림 17> 석사실

출처: Gurrieri, Palaces of Florence, 1996, p.59

채색된 자기 타일로 처리하여 영속적이고 화려한 채색과 장식 특성을 보인다. 가구는 규모가 크고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화려하고 정교하게 장식된 특성을 보인다.

3. 공간특성들의 비교분석

3.1. 공간배치, 공간연계방식, 실내장식 특성간의 관계 분석

위에서 보이는 각 특성들에서 유추된 결과들을 중심으로, 공간배치 특성과 공간연계방식 특성, 실내장식 특성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성향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이는 각 공간특성들에서 유추된 성향을 바탕으로 외양적으로 드러나는 물리적 성향만을 중심으로 그 성향들 사이의 관계를 유추한 것이다.

두 가지 성향 모두 공간배치 특성과 공간연계방식 특성, 실내장식 특성들이 나타내는 각각의 성향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분석결과를 간단히 제시하면 <그림 18>과 같다.

첫 번째 성향은 우선 공간배치 측면에서는 주택 외부와의 경계는 담으로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어 이러한 담의 폐쇄·방어로, 담 내부에 있는 주거건물과 이 담 사이에 외부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주거건물은 이 외부공간을 향해 적극적인

려 비교적 개방적이지만 직접적인 진출입은 연결이 어렵다. 실내 공간도 고정 불변의 벽으로 구획되어 폐쇄적인 특성을 보인다.

실내장식 특성으로 벽은 프레스코 벽화와 목재 패널, 벽돌 등으로, 천장은 볼트나 아치형에 프레스코화로 채색하거나, 빔 천장, 바닥은 정교한 모자이크나

채색된 자기 타일로 처리하여 영속적이고 화려한 채색과 장식 특성을 보인다. 가구는 규모가 크고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화려하고 정교하게 장식된 특성을 보인다.

<표 7> 이탈리아 팔라초(Palazzo)의 공간배치 및 공간연계방식과 실내장식 특성

분석 기준	구체적 분석 특성	유추된 성향		
공간 배치 특성	전체적 형상 (배치방식/형태/대칭성/축)	거대한 사변형으로 규칙적이고, 중점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균형잡힌 배치. 입구에서 중점으로 연장되어 주택의 중앙을 지나는 명백한 축.	주거 건물의 외벽, 자체가 외부와의 명확한 경계를 지어, 실내 공간들은 더 이상 밖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외부공간을 수용하고 있는 주거	
	채의 분화 여부	대규모의 독립된 블록을 형성하며 하나의 건물로 배치됨.	건물의 중앙부를 향해 내향적인 성향, 수직적인 공간확장	
	공간 구성의 중심성 및 확장, 연결 방식	평면 중앙에 개방된 사변형의 중점을 중심으로 주변의 실들이 둘러싸고 배치, 외벽이 고정 불변적으로 수평적 확장 불가능, 수직적 확장.	중요 부를 향해 내향적인 성향, 수직적인 공간확장	
	위계성 (공식/남녀/상하/가족서열)	오늘날보다 공적인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며 업무와 주거의 목적이 혼합되어 나타나며, 사회적 성격을 요구하는 방에 대한 접근이 신중히 조절됨. 주인의 거주 공간은 2층, 그 상부층에 자녀들의 침실, 최상층은 하인들의 공간으로 계단도 분리되어 상하와 가족서열에 따라 엄격한 위계성 있는 배치.	중요 부를 향해 내향적인 성향, 수직적인 공간확장	
	융통성과 융통성	공간 배치상 용도와 기능 분리의 엄격성	중요 부를 향해 내향적인 성향, 수직적인 공간확장	
실내 공간 특성	주택, 외부와 주택	주거의 경계와 개구부 처리방식	두꺼운 외벽이 주택의 경계. 창문이 규칙적으로 배열, 실외에는 덧문과 실내에는 널판이 부착됨. 1층의 창문 실외 쪽으로 창살 설치.	외부에 대해 폐쇄적
	주택 내 외부와 실내	벽과 개구부 처리방식, 매개공간	주택 내 외부인 중점 쪽으로도 규칙적인 창문 배열. 중점적으로 개방적 배치. 지상층은 아치로 구획. 그 상층부들은 커다란 창문으로 연결.	중점을 향해 개방적
	실과 실 사이	벽, 개구부 처리방식	고정불변의 벽으로 실내 공간 구획.	폐쇄적, 고정 불변
실내 장식 특성	벽, 바닥, 천장 처리방식	벽은 프레스코 벽화와 상감세공된 목재 패널, 회반죽, 벽돌 처리. 천장은 볼트나 아치형에 프레스코화로 채색. 바닥은 정교한 모자이크, 바닥판 무늬, 채색된 자기 타일 처리.	영속적, 복잡하고 화려한 채색과 장식. 벽면을 꼭 채움.	
	가구 특성 및 배치 방식	크고 작은 상자들, 침대 등 방의 주변부에 배치. 고정적인 모니브의 복잡한 물림 장식과 기원의 문장 등의 장식.	고정적, 화려하고 정교한 장식	

외향성을 지니는 것과 건물의 수평적인 확장이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공간연계방식 특성의 배경과 영향이 되어 실과 실 사이를 구획하는 방식이 융통성을 지니며 이에 따라 공간의 개방성을 지니, 실내공간과 실외공간이 하나로 융화될 수 있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공간연계방식의 개방성과 융통성을 통해 실내에 실외공간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외부에서 유입된 자연 자체가 배경과 장식이 되어 별도의 실내장식이 필요 없이 벽, 바닥, 천장 등 구조체와 가구들이 단순하고 유동적인 성향을 보이게 한다고 파악된다.

두 번째 성향은 우선 공간배치 측면에서는 주거건물의 외벽 자체가 외부와의 경계를 지으며 담의 역할을 하고 있어 실내 공간들이 외벽 밖으로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는 경우, 주거 건물은 주택 내에 외부공간을 수용하고 있는 중앙부를 향해 내향성을 띠며, 공간 확장의 방향도 수직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특성들은 공간연계방식 특성의 배경과 영향이 되어 실과 실 사이를 구획하는 방식이 폐쇄적이며 고정적인 특성을 보



<그림 18> 공간배치 특성, 공간연계방식 특성, 실내장식 특성간의 연관성

이다. 또한 이러한 폐쇄성과 고정성으로 인해 실내에 외부공간의 수용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워 실내장식의 특성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 벽, 바닥, 천장 등 구조체와 가구들이 복잡하고 고정적인 성향을 띄며 실내공간을 가득 채우게 한다고 파악된다.

3.2. 공간특성 및 관계의 국가별, 문화권별 비교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양 문화권의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위 <그림 18>의 A 성향을 보이고 있었고, 고대로마, 이태리, 이집트 등 서양문화권의 국가들도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모두 B 성향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두 가지 다른 성향은 동양과 서양 문화권의 상이성과 독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실내·외 구획에 있어 개방성과 융통성이 덜하고 실내장식의 특성이 보다 복잡하고 화려한 특성을 보이고 있었고,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집트가 로마와 이태리, 그리고 동양 문화권과도 다르게 경계가 담으로 외부에 폐쇄적인 특성을 보이지만, 주택건물 자체의 방향성도 외향적이지 않고 내향적인 성향을 보이고, 내부 공간에서 외부공간으로의 확장성 또한 주거건물 자체에서는 다소 수직적인 방향을, 그 외의 기능을 지니는 건물들은 수평적인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어, 각각의 문화권에 속하는 다른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특성에서 다소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국가별로 각각의 국가가 가지는 서로 다른 배경과 다양한 변인에 따라 두 성향 사이에서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A 성향은 일본에서 가장 강하게 보이고 있는 반면, B 성향은 이태리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일본과 이태리의 사이에 한국, 중국, 이집트, 고대로마 등의 순서로 두 성향 사이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나타나고 있었다.

국가별로 이러한 각 특성의 성향과 차이를 비교하고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표 8>와 같이 정리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실내 디자인 역사에서 큰 비중으로 인식되어 온 유럽권의 고대로마, 이집트, 이태리와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이며 한국문화와 유관하고 또 국외에서 문화적 혼동을 추기도 하는 한국, 중국, 일본을 선정하여 각 국가를 대표하는 사례들을 통해, 공간배치 특성, 공간연계방식 특성, 실내장식 특성 및 이들 측면간의 상호 연관성을 유추하고 국가간의 유사성, 상이성을 논의해 보았다. 제한된 사례들을 통해 나타난 결론으로서 그것을 일반화하기에는 사례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지니나 이들 사례가 각 양식의 대표군에 속하며 이들이 지닌 전통 문화적 특성은 오랜 시일동안 지켜져 내려오는 특성으로서 쉽게 시일에 따라 변하지 않기에,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유사성, 상사성은 이들 공간 문화의 비교지식을 축적하는 하나의 판문 역할을 하리라 생각된다.

각각의 공간 특성들은 앞의 <그림 18>, <표 8>에서와 같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두 가지 성향으로 설명될 수 있었고, 또한 국가와 문화권별로 각 성향의 정도 차를 보이며 유사성과 상이성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또한 공간의 물리적, 형태적 특성과 방식은 각 국가와 문화권별로 다양성을 보이고 있었지만, 외부공간을 주택 내에 수용하고, 다시 이러한 주택 내에 수용된 외부 공간과 실내와의 융화를 꾀하려는 성향은 문화권과 국가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공통점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추구되는 요구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별, 문화권별로 다양한 가지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각 국가가 지닌 비가시적인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인 요인들과 물리적·환경적인 요인들이 그 배경이 되어 특정한 주택의 형태를 형성하며 나타난 결과로 파악된다.

한편, 건축과 실내디자인의 역사와 관련한 교과목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대 시대부터 20세기까지의 유럽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쓰여져 왔다. 그러나 다국적 문화의 공존성이 존중되는 시대에 더 이상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별 전통 공간의 미학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필요하며, 현대인들이 그 상사성과 유사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틀도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동·서양의 모든 문화와 공간이 공존하는 다국적 문화를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의 방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동·서양 각각의 독자성을 인정하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지식 기반이 형성될 수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기존의 실내 디자인 역사 교육은 디자인 양식사를 근간으로 하여 보다 장식 양식에 치우쳐 온 특성이 있다. 이는

<표 8> 국가별 공간특성의 성향

분석 기준		동양 문화권			서양 문화권		
		한국	중국	일본	로마	이집트	이태리
공간 배치 특성	주택경계방식	담	담	담	주택지체 외벽	담	주택지체 외벽
	주거건물의 방향성	외향적	비교적 외향적	외향적	내향적	비교적 내향적	내향적
	공간확장의 방향성	수평적	수평적	수평적	수직적	수직적	수직적
실내 공간 특성	실내·외 구획 성향	개방적	비교적 개방적	개방적	비교적 폐쇄적	폐쇄적	폐쇄적
	실간 구획 성향	개방적 / 융통적	개방적 / 비교적 융통적	개방적 / 융통적	폐쇄적 / 고정적	폐쇄적 / 고정적	폐쇄적 / 고정적
	내부공간에서 외부공간으로의 확장성	수평적	수평적	수평적	수직적	비교적 수평적	수직적
	벽, 바닥, 천장 처리 성향	단순	비교적 복잡	단순	복잡	복잡	복잡
가구의 배치 및 처리 성향	비교적 유동적 / 간소	비교적 고정적 / 화려	유동적 / 간소	고정적 / 화려	고정적 / 비교적 화려	고정적 / 화려	

학문 역사가 짧은 만큼 그 정체성을 찾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 및 학술적 정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실내 디자인이 실내건축과 실내장식 모두를 포괄하는 보다 포괄적인 전문 분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시대에, 실내디자인사의 교육 내용은 실내공간에 관한 모든 내용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에서 재편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그 시작 단계의 문을 두드렸다 하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봉림, 시대를 담은 그릇, 월간 이상건축, 1999
2. 류경수, 우리 옛 건축에 담긴 표정들, 대원사, 1998
3. 박영길, 서양건축사, 세진사, 1993
4. 박영순 외, 우리 옛집 이야기, 열화당, 1999
5. 손세관, 도시주거형성의 역사, 열화당, 1995
6. 손세관, 북경의 주택, 열화당, 1995
7. 윤장섭, 서양건축사, 동명사, 1993
8. 윤장섭, 한국의 건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9. 이연숙, 서양의 실내공간과 가구의 역사, 도서출판 경춘사, 1991
10. 주남철, 이태리 르네상스 건축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7
11.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97
12. 중국건축사편찬위원회, 중국건축개설, 태림문화사, 1990
13. Badawy, Alexander, A History of Egyptian Architecture,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14. Ball, Victoria Kloss, Architecture and Interior Design, Wiley-Interscience, 1980
15. Barton, Ian M.(Ed), Roman Domestic Building. Exeter: University of Exeter Press, 1996
16. Pirazzoli-t'Sertevens, Miche(19--), Architecture of the World: China, Benedikt Taschen.
17. Clarke, John R., The Houses of Roman Italy. Berkeley and Los Angele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18. Drexler, Arther, The Architecture of Japan, New York: The Museum of Modern Art, 1955
19. Ehresmann, Donald L., Architecture: A Bibliographic Guide to Basic Reference Works, Histories, and Handbooks, Littleton, Colorado: Libraries Unlimited, Inc., 1984
20. Gurrieri, Francesco, Palaces of Florence, Rizzoli New York: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 1996
21. Hashimoto, Fumio, Architecture in the Shoin Style: Japanese Feudal Residences. Tokyo, New York, and San Francisco: Kodansha International Ltd. and Shibundo, 1981
22. Hirai, Kiyoshi, Feudal Architecture of Japan, New York, Tokyo: Weatherhill/Heibonsha, 1973
23. Lessing, Erich & Varone, Antonio, Pompeii, Paris: Finest S. A./Editions Pierre Terrail, 1995
24. Masuda, Tomoya, Architecture of the World: Japan. Benedikt Taschen, 1997
25. Mau, August, Pompeii: Its Life and Art. New Rochelle: Caratzas Brothers, Publishers, 1982
26. McCorquodale, Charles, The History of Interior Decoration, Oxford: Phaidon Press Ltd, 1983
27. McKay A. G, Houses, Villas and Palaces in the Roman Worl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5
28. Mitchell Beazley International Ltd., ed., The World Atlas of Architecture, London: Chancellor Press, 1998
29. Murray, Peter, The Architecture of the Italian Renaissance,

Themes and Hudson, 1994

30. Richardson, L. Jr., Pompeii: An Architecture History.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8
31. Smith, E. Baldwin, Egyptian Architecture as Cultural Expression, New York, London: D. Appleton-Century Company, 1938
32. Wallace-Hadrill, Andrew, Houses and Society in Pompeii and Herculaneum: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33. Yoshida, Tetsuro, The Japanese House and Garden.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95
34. 베르트랑 제타 저, 김택 역, 건축의 르네상스, 시공 디스커버리 총서, 1997
35. 보이드 앤드류 저, 이왕기 역, 중국의 건축과 도시, 기문당, 1999
36. 西和夫 외 1 저, 이무희, 진경돈 역, 일본건축사, 도서출판 세진사, 1995
37. 劉敏楨 저, 한동수 외 2 역, 중국고대건축사. 도서출판 세진사, 1995
38. 지연순, 전진희 공역, 르네상스 건축, 세진사, 1997
39. 太田博太郎 저, 박연곤 역, 일본 건축사, 도서출판 발언, 1993
40. 손세관, 중정형 도시주택의 공간구조에 관한 문화적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권 11호. 13-23쪽, 1994
41. 이배화, 한국전통건축에 나타난 공간구조의 유형학적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 2호, 1998
42. 한필원, 중국 북경 사합원의 공간구조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11호, 1997
43. 김형우, 중정주택의 형태적 특성과 유형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접수 : 2001. 5. 4>